

두 가지 합리성과 자유주의: 하이에크와 버논 스미스

황재홍*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구성적 합리성과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합리성 개념에 관한 하이에크와 버논 스미스의 논의를 비교하는 것이다. 버논 스미스는 자신의 실험경제학 연구를 종합함에 있어 하이에크의 이론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양자의 개념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하이에크 이론 전체의 일관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버논 스미스의 하이에크 해석을 따를 경우 하이에크 이론의 비밀관성이 보다 분명해지며 하이에크 이론에 기반한 반자유주의 비판의 근거는 약화된다.

주제분류 : B030101

핵심 주제어 : 하이에크, 버논 스미스, 구성적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자유주의

I. 서론

버논 스미스는 여러 저작에서 자신의 연구와 하이에크의 연관성에 대해 서술해왔다. 특히 노벨상 수상 강연록이 기초가 되어 2008년에 출간된 『경제학에서의 합리성: 구성적 형태와 생태적 형태』에서 버논 스미스는 두 가지 합리성에 기초하여 책 전체를 서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두 가지 합리성에 관한 하이에크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합리성의 개념과 쓰임새에 있어 하이에크와 버논 스미스 사이에는 중요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버논 스미스의 저작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 목원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조교수, e-mail: zootjhong@hanmail.net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차이는 하이에크 철학 전체의 일관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서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버논 스미스는 시장의 효율성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험경제학을 사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하이에크를 재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버논 스미스가 시장을 설명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옹호와 구성적 합리성(구성주의) 비판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관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글은 두 가지 합리성 개념에 관한 하이에크와 버논 스미스의 차이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철학이 가지는 딜레마와 연관되어 있으며, 버논 스미스의 개념을 따를 경우 하이에크의 반자유주의 비판의 근거는 상당히 약화될 것임을 보이하고자 한다.

Ⅱ. 하이에크와 버논 스미스의 두 가지 합리성

버논 스미스는 『경제학에서의 합리성: 구성적 형태와 생태적 형태』의 서론에서, 실험경제학에서의 연구를 통해 두 가지 합리성에 관한 하이에크의 구분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두 가지 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개인 또는 조직에 적용되는 구성적 합리성은 다른 대안적 행동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을 분석하고 처방하기 위해 이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도에 적용되면 구성주의는 더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 체계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제도의 최적 설계도 포함된다.

생태적 합리성은 관행, 규범, 진화된 제도적 규칙의 형태로 출현한 질서를 의미한다.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의 일부이며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인간에 의해 의식적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다(Smith, 2008, p.2).

버논 스미스는 이렇게 두 가지 합리성을 구분한 후 이 두 개념이 내재적으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구성적 합리성과 생태적 합리성의 대립 구도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이 둘은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진화적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구성주의적 혁신이 변이를 제공하고 생태적 적응과정이 선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ibid., p.2).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서술이 반복되고 있다. 2장에서 “구성주의는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을 모델링하려는 시도, 사회 시스템을 고안하려는 시도와 연관되며 생태적 합리성은 인간의 적응적 의사결정, 발견의 그룹 프로세스와 연결된다(ibid., p.25).”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합리성은 일상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매일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단지 이러한 상호작용이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 속에서 잘 인식되지 않을 뿐이라고 버논 스미스는 서술하고 있다.

버논 스미스는 두 가지 합리성을 설명함에 있어 하이에크의 서술을 여러 차례 직접 인용하고 있다. 아래의 문구들은 버논 스미스가 자신의 책(ibid., pp.25-26)에서 구성적 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하이에크의 서술들이다.

인류의 모든 유용한 제도는 의식적인 이성애 의해 고안된 것이고 또한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고 데카르트는 주장했다... 몇 가지 분명한 가정으로부터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다 (Hayek, 1967, p.85).

벤담과 공리주의자들은... 합리적 원리에 근거해서 영국의 모든 법과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했다(Hayek, 1960, p.174).

구성주의는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무한대의 힘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류의 제도는 인류의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을 때에만 그 목적에 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제도의 존재는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렇게 알려진 목적에 의해 안내될 수 있도록 사회와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Hayek, 1973, pp.8-9).

생태적 합리성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저렌저 등도 사용한 것이라고 버논 스미스는 서술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생태적 합리성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진화적 합리주의 또는 비판적 합리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버논 스미스는 비록 용어 자체는 바뀌었지만 그 용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이에크가 말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성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통찰, 개인 행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회의 질서는 어떤 관행을 따르는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이 보존되는 과정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는 통찰에 이르게 한다(Hayek, 1973, pp.8-9).

위 문구는 진화적 합리주의를 설명하는 하이에크의 서술로 버논 스미스가 자신의 저작에서 생태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의 제도와 질서는 인간 행동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지만 이성에 의한 설계물이 아니며, 인간은 자신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규칙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생각은 스코틀랜드 철학자와 하이에크의 지적 유산이며, 실험경제학은 출현된 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에서 도출되는 가설들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버논 스미스는 서술하고 있다(Smith, 2008, p.37).

이러한 서술들에 비추어 볼 때, 버논 스미스 자신은 하이에크의 두 가지 합리성 개념과 자신의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합리성을 서술함에 있어 하이에크가 사용한 개념을 자신의 저작에서 그대로 인용하였고 양자 사이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합리성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버논 스미스와 달리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구성적 합리성과 생태적 합리성은 결코 화해될 수 없는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 이는 버논 스미스가 두 가지 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하이에크의 저작들에서조차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버논 스미스가 인용한 하이에크의 1973년 저작의 첫 장 제목이 ‘이성과 진화’이다. 인간의 행위 패턴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문장으로 시

작되고 있고, “물론 그 중 하나는 거짓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시각에서 인간은 완전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목적추구적 행위를 하는 존재인 반면, 비판적 또는 진화적 합리주의 시각에서는 인간은 불확실성과 무지의 상황에서 진화의 결과물인 규칙과 전통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 사회 제도가 인간 이성의 설계물이라는 주장이 구성주의인 반면, 진화적 또는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제도와 질서는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이다. 이렇듯 하이에크는 구성주의(구성적 합리성)와 진화적 합리주의(생태적 합리성)를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거짓이고, 다른 하나는 참이다. 설계된 제도(taxis)와 자생적으로 출현한 제도(cosmos)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성과 진화라는 구분에서 나타났듯이 하이에크의 진화라는 개념에서 구성적 합리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 같이 하이에크는 두 가지 합리성을 대립적으로 파악했고 구성주의란 이름 아래 많은 학자들과 이론들을 비판하였다. 다이아몬드(Diamond, 1980)에 따르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는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낙관주의, 사회계약론/공리주의, 사회주의적 중앙계획을 지칭하다.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를 설계하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중앙에서 배분할 수 있다는 믿음은 모두 구성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이에크에 있어 이러한 구성주의는 반자유주의, 사이비 개인주의가 된다.

하이에크가 구성적 합리주의와 진화적 합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 저작에서 이미 진정한 개인주의와 사이비 개인주의라는 구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사이비 개인주의는 결국 전체주의로 이어지게 된다는 논리가 펼쳐진다(Hayek, 1948, pp.1-32). 하이에크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 홉스나 루소로 이어지는 대륙 전통의 합리주의와, 흄이나 아담 스미스 등 스코틀랜드 철학에 기반한 반합리주의를 구분하면서 전자를 사이비 개인주의, 후자를 진정한 개인주의로 명명하고 있다. 하이에크에 있어, 사회질서를 인간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가 아니면 인간의 설계의 결과로 보는가가 진정한 개인주의와 데카르트적 개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회계약론적 개인주의’ 또는 ‘사회제도 설계이론’은 사회과정이 개별 인간

의 이성의 통제 아래 놓일 때에만 인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개인 지식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지식을 알 수 없다면, 진정한 개인주의는 모든 강압적이고 배타적인 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개인주의 시스템은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인 규칙이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이에크는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하이에크에 있어 “구성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反자유주의(Hayek, 1967, p.94)”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Ⅲ. 하이에크의 딜레마

하이에크가 이처럼 구성적 합리성(구성주의)과 생태적 합리성(진화적 합리주의)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논 스미스의 경우 중요한 것은 두 합리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진화과정에서 두 합리성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하이에크 이론의 어떤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구성주의는 反자유주의라는 하이에크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역시 일정 부분 구성주의에 의존하게 된다는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호지슨은 하이에크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완벽함을 향한 진화에 대한 신념 대신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유토피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제도와 일반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 개입이 특정 트랙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하이에크 사상에 있어 이러한 개입주의적 성향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현실에서 자유시장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심이 들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따라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국가 개입을 위한 대부분의 제안은 쉽게 반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 관계와 사적 소유권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던 국가에서의 개혁에서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에서는 어떻게 되나?... 동유럽에서 사적 소유권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하이에크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주장

사이에 갇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시장에 대한 지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적인 구조 변화 또는 구성주의에 대한 반대. 만약 그가 이 딜레마의 한 쪽을 선택한다면 그는 소비에트에서의 개혁에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혁은 본질적으로 개입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 우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제 증명의 부담은 더 이상 개혁을 옹호하는 자에게 놓여지지 않는다. 소비에트 사회와 같은 맥락에서 증명의 부담은 시장과 소유권의 도입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성주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은 날카로움을 잃었다. 합리적 방식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하이에크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자신 역시 구성주의로 빠져들었다 (Hodgson, 1993, pp.183-184).

이처럼 하이에크 이론에 내재하는 비일관성에 대한 지적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것이다(Kukathas, 1990; Vanberg, 1994). 하이에크는 줄곧 사회제도와 질서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출현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개혁, 자유주의적 제도 개선을 언급할 때 그는 구성주의적 태도를 취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

또한 이성과 진화 또는 구성적 합리주의와 진화적 합리주의라는 하이에크의 구분이 사실은 하이에크의 이론 내부에서도 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에크에 따르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시각에서 인간은 완전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목적추구적 행위를 하는 존재인 반면, 비판적 또는 진화적 합리주의 시각에서 인간은 불확실성과 무지의 상황에서 진화의 결과물인 규칙과 전통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 이 맥락에서 이성적 선택과 규칙 따르기는 대립적인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성적 선택과 규칙 따르기는 양립가능한 패턴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칙은 어떤 특정 상황에 맞게 개조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구체적 행위의 어떤 측면만을 통제하거나 경계를 짓는다. 이 규칙들은 어떤 의식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제한한다. 일정한 행동을 제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일상적인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의 여러 대안들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다(Hayek, 1967, p.56).

더구나 하이에크의 진화이론에도 구성적 합리성의 요소가 도입된다.

문화진화에 있어 이러한 대부분의 진전들은 전통적 규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실행하는 개인들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Hayek, 1979, p.161).

하이에크가 이성적 선택과 대비하여 규칙 따르기를 설명할 때 규칙은 인간이 무지에 대해 대응하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무지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전통을 깨뜨리는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야기하게 된다. 하이에크 체계 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이성(구성)과 진화라는 대립적 구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서술들을 종합해보면, 하이에크는 명시적으로 두 합리성 사이에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한 쪽을 반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이론 내부에서도 두 합리성이 모두 동원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합리성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진화과정에서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는 버논 스미스의 주장은 하이에크의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버논 스미스는 하이에크의 저작 속에 나타나는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 즉 대립 구도로서의 두 합리성과 상호작용하는 두 합리성 중 후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자유주의 진영의 하이에크 해석과 버논 스미스

위와 같은 버논 스미스의 하이에크 해석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하이에크의 딜레마를 극복하려고 했던 다른 시도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버논 스미스는 인간의 행위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합리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지

만, 하이에크에 있어 구성적 합리성은 자신의 이론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임과 동시에 제거되어야 할 반자유주의적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가 호지슨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이론 구조 속에 포함된 구성적 합리성과 반자유주의적인 구성적 합리성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반베르그(Vanberg, 1994, 2011)는 하이에크 이론에 내재된 이러한 딜레마를 합리적 자유주의와 진화적 불가지론 사이의 긴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 자유주의란 자유주의 질서가 왜 다른 질서보다 우월한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유주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주장들을 의미한다. 과학적 지식이 단지 사회현상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의 의미도 담겨 있다. 반면 진화적 불가지론은 의도적인 제도 개혁과 구성을 위한 어떤 노력도 진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하이에크의 후기작으로 갈수록 진화적 불가지론적인 서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하이에크의 전체 체계에서 합리적 자유주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베르그의 해석이다.

반베르그의 해석에 따를 때, 자생적, 진화적 과정으로서의 시장 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설계와 양립가능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이에크가 시장 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일정 규칙 내에서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주의 전통에서 시장의 기능은 폭력과 사기의 방지, 소유권의 보호, 계약의 강제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장 경쟁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규칙의 제약이 미리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화 과정의 본질은 규칙의 기원이 의도되지 않았고 자생적이었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규칙이 바람직한 성격을 지니는 경쟁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따라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제도 개혁은 진화과정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반베르그는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하이에크가 사용하고 있는 진화적 합리주의라는 용어는 합리적인 제도 개혁과 설계물의 선별 과정의 결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하이에크가 말하는 진화는 진화과정에 직면하여 계획적인 제도 개혁이나 구성이 궁극적으로 헛된 것이 된다는 의미의 불가지론적 진화가 아

님을 반베르그는 강조하고 있다.

뷰캐넌과 반베르그(Buchanan and Vanberg, 2002)도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을 ‘헌정적으로 제약된 진화’(constitutionally constrained evolution)라는 패러다임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장은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탐색할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탐색 과정이 참여자들의 이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헌정적 틀에 배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헌정적 틀은 시장의 영역을 제한한다. 이러한 영역 내에서 진화적 시장과정은 규칙들의 제약 아래 작동하게 된다. 물론 시장을 위한 적절한 헌정적 틀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의 한계가, 구성원들이 모든 계획적인 헌정적 구성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정적으로 제약된 진화라는 개념은 헌정적(또는 창조적) 선택과 진화가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계획적인 문제 해결 노력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진화라는 개념에 인간의 목적이나 의도, 제도 설계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의도적인 제도의 개혁과 설계 자체가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와는 구분된다고 반베르그는 서술하고 있다. 구성주의에 대한 하이에크 비판의 핵심은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성의 한계를 무시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비판은 사회질서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 이를 수행함에 있어 등장하게 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을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계획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반베르그는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단일 계획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을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지만 자유주의적 계획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계획에 따라 다양한 행동들이 행해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틀을 설계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는 단지 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창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문화진화론 속에서도 하이에크가 끝까지 고수했던 태도라고 반베르그는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진영의 하이에크 해석과 버는 스미스의 하이에크 해

석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공통점은 구성(이성)과 진화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는 모두 새로운 문제 해결에 있어 인간의 창조적 선택, 계획, 설계 등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진화의 한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구성(이성)과 진화는 생각만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자유주의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창조적 선택, 계획, 설계이라는 요소를 하이에크가 분명히 옹호하고 있었다는 점을 하이에크의 저작에서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반베르그, 뷰캐넌 등이 이성, 계획, 설계 등의 요소가 하이에크의 진화이론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구성주의와 구분하려고 했던 반면, 버논 스미스는 이를 명시적으로 구성적 합리성, 또는 구성주의라고 서술하고 있다. 두 합리성에 관한 버논 스미스의 정의와 해석에 따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사회계약론/공리주의를 비판할 때 사용되었던 구성주의와 자유주의적 개혁, 시장의 도입 등에 사용되는 구성주의가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버논 스미스의 저서에는 미국 항공 산업과 캘리포니아 에너지 시장의 탈규제 과정이 두 가지 합리성의 적용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Smith, 2008, pp.47-53). 항공 산업 탈규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도시 터미널 집중 방식(hub-and-spoke system)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구성주의적 사업 모델이 변이를 제공하고 생태적 환경이 시장에서의 선별을 제공한 사례라는 것이 버논 스미스의 설명이다. 항공 산업의 탈규제 이후 많은 신규 항공사들이 2차 도시들 사이의 직항노선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계획은 실패하고 항공사들은 파산하였다. 결국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허브 도시와 2차 도시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생태 합리적 질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도매 시장과 도매 가격에 대한 규제는 없애는 대신 소매 가격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장자유화가 행해졌으나 이 구성주의적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버논 스미스의 설명이다. 모든 전력공급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하여 최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 공급의 부족을 발생시키기 쉬운 구조이며 따라서 소비자들

의 선호와 소매 공급자의 기술을 고려한 생태적 실험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구성주의적 계획만으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버논 스미스는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예는 모두 기존의 정부 규제가 제거되고 새로운 시장 질서가 성립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질서의 도입 과정에서 버논 스미스는 구성주의, 구성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베르그나 뷰캐년의 용법과 해석을 따르자면, 새로운 시장 질서의 출현에 설계, 계획의 요소가 도입되기는 하지만 이는 구성주의와는 구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버논 스미스가 의식하고 있었던 그렇지 않았던, 두 가지 합리성에 관한 버논 스미스의 정의와 해석은 자유주의적 개혁에 사용된 구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개혁에 사용된 구성주의가 사실상 구분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반베르그나 뷰캐년이 감추고 싶었던 하이에크 이론의 딜레마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버논 스미스를 비롯하여, 많은 실험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물론 이 시스템 설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 설계라는 용어는 최초의 설계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경제적 환경에 적응해 가는 진화적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의 과정에는 두 가지 합리성이 모두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에서 반자유주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구성주의의 용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버논 스미스가 하이에크의 구성주의의 개념에 주목했을 때 이는 시장 설계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반자유주의 비판의 수단으로 구성주의 개념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분명 하이에크 이론에 대한 일면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 하이에크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구성주의는 비자유주의적 개입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개입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반베르그 등에 비해 구성주의가 시장 설계에 사용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하이에크의 이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결코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칼 폴라니(Polanyi, 1944) 같은 대표적인 반시장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투고 일자: 2012. 8. 28. 심사 및 수정 일자: 2012. 10. 15. 게재 확정 일자: 2012. 10. 22.

◆ 참고문헌 ◆

- Buchanan, J. and V. Vanberg,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Radical Subjectivism,"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5:2, 2002, pp.121-129.
- Diamond, A., "F.A. Hayek on Constructivism and Ethics," *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 4, No. 4, 1980, pp.353-365.
- Hayek, F.,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_____,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_____,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_____,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Rules and Order*,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 _____,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Routledge and Kegan Paul, 1979.
- Hodgson, G., *Economics and Evolution: Bringing Life Back into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Kukathas, C., *Hayek and Modern Liberalism*, Clarendon Press, 1990.
-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1944.

Smith, V., *Rationality in Economics: Constructivist and Ecological Forms*, Cambridge, 2008.

Vanberg, V., "Hayek's Legacy and the Future of Liberal Thought: Rational Liberalism versus Evolutionary Agnosticism," *Cato Journal*, Vol. 14, No. 2, 1994, pp.179-199.

_____, "Darwinian Paradigm, Cultural Evolution and Human Purposes: On F.A. Hayek's Evolutionary View of the Market," *Max Planck Institute Discussion Paper* 1119, 2011.

Two Forms of Rationality and Liberalism: Hayek and Vernon Smith

Jaehong Hwang*

Abstract

Vernon Smith makes use of Hayek's concept of two forms of rationality to obtain a larger vision of meaning in social and market behavior. However, there is big difference between Hayek's concept and Smith's. This difference is very closely connected with a inconsistency of Hayek's theory. Smith's interpretation reveals the inconsistency more clearly and weakens the grounds of liberalist's critique on social planning and intervention.

KRF Classification: B030101

Key Words: Hayek, Vernon Smith, constructivist rationality,
ecological rationality, liberalism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okwon University,
e-mail: zootjhong@hanmail.net